

2004. 4. 14(水)

# 第23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 제 : 경제 재도약의 길  
-오늘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 연 사 : 백영훈 원장(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제23회 한경연 포럼

# 경제 재 도약의 길

-오늘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백 영 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Tel: 02-584-1610 e-mail : kidmaster@kid.re.kr)

# 경제 재도약의 길

## - 오늘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

### 1. 경제위기의 실상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는 역사적 시련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 세계적 패권주의, 디지털 혁명 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발전의 엔진은 멈춰지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갈 경제원동력이 쇠퇴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미증유의 중산층이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외딴곳의 농어민과 영세 소시민들은 나라에 대한 미래적 기대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발전의 뚜렷한 목표와 전략의 아젠다를 새롭게 설정해야만 한다. 과거에 매몰되고 있는 한국적 시간과 내일을 향해 준비해야 하는 세계사적 시간 사이의 역사적 과제를 온 국민의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또 하나의 역사적 대실패를 후세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난국을 우리들의 다짐으로 확고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지난날의 경제를 뒤돌아 볼 때 그토록 힘겹고 어렵게 이룩했던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 않나 하는 위기감마저 불어닥친다.

지금처럼 치열한 국제 환경속에서 과연 지난날처럼 우리들의 영광을 다시 찾아 볼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이 물음에 더 이상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는 새천년이 시작된 역사의 전환점에 살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새천년을 설계하는 민족의 테마를 내걸고 새로운 국부창조를 위한 열기를 쏟고 있다.

우리의 반세기 역사는 세계사의 200년과 같다. 경제사 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정보사회에 와있다. 우리의 건국사는 압축경제의 역사였다. 그만큼 구보의 역사였고 고성장의 역사였다. 자랑스러운 50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MF체제를 겪는 동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란 대명제 아래 엄청난 규모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파산지전의 은행을 구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난 5년동안 무려 150조 원이 넘는 국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공무원 연금 부채, 정부투자기관 부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적부채를 합하면 2003년말 기준으로 무려 760조원을 넘고 있다. 연간 지급되어야 할 이자만 12조원이 넘는다. 이 금액은 같은해의 국민총생산(GDP)의 123%의 규모에 해당한다.

2003년말 현재 국민가계 부채 총액은 이미 550조원을 초과했고 가구당 부채가 3000만원을 넘고 있다.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등 도박장에 즐서 있는 인구가 무려 320만명이 넘고 있으며 이들이 년

간 탕진한 금액이 10조원에 달한다. 신용카드가 연체된 부실채권자도 이미 300만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 발행자의 30%에 달하고 있다.

지금 12개 정부 각부처가 Lotto와 ToTO등 14개에 달하는 국민복권 발행을 통해서 국민적 사행심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국민저축이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 우리나라 중산층은 벤처투자의 거품속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무려 300만가구가 벤처투자에서 60조원의 손실(2003년기준)을 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5년간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이 54조원이나 증발되었다. 더 이상 벤처투자에 기대를 거는 개미군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지난 날의 외채위기의 시련을 벗어나 새로운 내채위기의 함정을 몰고 온 치명적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감속에서 지금 국민은 경제에 대한 미래적 기대를 잃고 있다. 불안속에 온국민이 희망과 꿈을 빼앗겨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세 번째 대실패가 될지도 모른다. 시간이 멈춰버리지 않는 한 국토전체가 가라앉지 않는 한, 우리뒤의 역사만이 천진한 어린아이들의 삶에 남겨질 것이다. 그러다 모르는 사이에 또 시간만이 흘러 다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다.

아마 세계의 벽을 허물려는 발버둥에 앞서 우리 자신들의 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무엇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는 의미가 적다. 무엇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라와 우리를 위하는 진정한 리더가 없을 때 우리들 한 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모아가야만 한다. 기적이라 믿었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 남겨놓을 수가 없다.

## 2. 경제 재도약의 조건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민주화시대의 역기능 현상이다.

대통령5년 단임제하에서 권력구조의 상층에서 정책을 담당해 온 관료집단이 단기적 인기의 영합주의속에서 국가경제의 장기적 아젠다를 망각하였고 평등과 정의실현의 개혁과동속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을 멈추게 했다. 국민의 기업정서를 왜곡시키고 반기업주의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왔다.

따라서 21세기의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관료집단의 왜곡된 경제지배사상을 바로잡고 기업집단을 중심으로한 성장엔진을 재정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하여 민관합동에 의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이념을 새롭게 정립해야한다.

고용창출이나 실업자주제문제는 명분으로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경쟁력을 향한 기업집단의 피나는 노력과 진정한 노사협력기반위에서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지금 밀려오는 외국자본과 외국상품의 물결속에서 쇠퇴되어가는 경제주권의식을 회생시키는데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외국자본 만능주의의 왜곡된 경제사상을 지양하고 국내기업들의 역차별을 막고 외국기업들과 대응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총액출자제한, 경쟁력집중억제, 기업지배구조개혁 등 허다한 대기업규제의 악조건위에서 결코 외국자본과의 경쟁불이익을 극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 시대에 무한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새롭게 정비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역사로부터 배우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 앞서있고 보다 개혁적이라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과거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채 평등과 분배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개혁적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제이념과 정치리더십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따라서 이시점에서 국가와 기업집단 그리고 국민모두가 자기 희생없이는 경제재도약의 새로운 성취의 희열을 맛볼 수 없으며 내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스스로가 자기 희생의 새로운 각도위해서 시작되어야한다.

정부예산만 하더라도 이제 120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매년 나타나는 세제잉여금도 몇조원에 달한다. 정부기구면에서도 낭비요소는 허다히 깔려 있다. 정부 스스로가 국가예산상에 불요불급한 요인이 날로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늘어만 가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등 국가예산의 경직성 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낭비요소를 안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먼저 정부 스스로에 귀착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그러므로(아울러)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역할의 새로운 다짐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책이념위에서 제로섬 예산으로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현대 자본주의의 올바른 규범은 가용자원의 재편성을 통해서만이 자원의 낭비와 불합리성을 배제하고 미래의 생산적인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큰 적은 허구와 허상속에 파묻혀 국가자원과 국민적 부의 축적기능을 왜곡되게 잠식하는 비능률적인 관료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으로 오늘의 권력구조와 국가리더십이 국부의 가치창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냐가 그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결정적요소라는 것을 실감하고 정부조직의 총체적 진단과 새로운 국가적 리더십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21세기를 맞이해서 한국경제는 지금 세계사적·역사적인 의미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권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사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자리매김은 한 나라의 위상과 능력이 어떠한가와 아울러 역사의 발전법칙에 따른 시대적 운동과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시대적 변혁에 임하여 이 시대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전향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여력 전부를 재투자하는 등, 새출발을 위한 새로운 준비에 전력투구를 함으로서 2만불시대의 새로운 고지를 정복해야한다.

구식대의 고리가 개발 독재였던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이 개발 독재의 고리가 절단되어 파기되었다는 사실도 누구나 안다. 그러나 어떤 고리를 그 자리에 새로 장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외견상 개발 독재의 자리에는 민주주의



라는 새고리가 끼워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로 판단하면 새고리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의 공감대를 위해 무엇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로 되돌아가 독재라는 통합의 고리를 다시 씌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흥망을 가늠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긴 안목으로 국가전략을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지구촌시대에 대응하는 국가경쟁의식을 새롭게 다짐함과 더불어 위에서는 정치지도력과 정책당국은 물론 기업가 스스로가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경쟁력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해가기 위한 국가전력을 하루 빨리 재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 전략경영이라는 용어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변혁을 주도하는 핵심적 발상을 의미한다.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기업의 새로운 생명력을 재발견하는 수평적 사고의 발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전체적으로 구각에서 벗어나고 밀려오는 격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신전략을 모색하는 발상을 말하는 것이다.

경영에 있어서 개발모델 자체가 내일의 새로운 변혁에 얼마나 적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의) 성·패가(를) 근본적으로 가늠하게 된다. 지난날의 개발모델은 이제 그 스스로가 성장주도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바뀌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은 「첨단산업체질」에로의 혁신과, 이를 통하여 성숙단계로의 이행을 추구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본 축적력·기술력·생

산력·경영력 등을 구비하는 작업을 새로운 구심점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 3. 맺는말

세계적 경제학자 미국 MIT대학 쉐로우 교수는 ‘세계경제전쟁 (Head to Head)이란 그의 저서에서 앞으로 1백년후에 남게 될 세계 20대 강대국 리스트를 작성함에 있어 한국을 제외시켰다. 한국은 앞으로 1백년후에도 세계 20대 강대국의 서열에 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를 그는 육사경기 선수에 비유하면서 단거리 선수는 체질적으로 장거리에 약하다고 했다. 비록 1백미터의 단거리 경주에서는 선두를 달릴 수 있었지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선수로서는 체질적으로 부적당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정말 대한민국은 1백년 후에도 세계 20대의 강대국 품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거의 기적에 가까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올린 발전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쉐로우 교수가 말한 선진국의 조건은 순발력있게 달리는 모습은 결코 아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내실을 다져가며 합리적이고 질서있는 삶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생태에서도 선진국으로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성공, 그것도 “절반의 성공”에 발목이 잡혀있는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턱거리에서 지금 9년째 허둥대고 있

다. 역사의 비정이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서고 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자들, 해외이민에 줄서있는 젊은 세대들,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의 행렬, 아파트 투기에 줄서 있는 중산층들... 이 모든 작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비정이다.

지구안의 나라들이 뜨고 지는 것을 돌아보면서 한 민족과 국가가 어떠한 이상과 철학을 갖고 역사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새삼 배우게 된다. 영원한 부국은 없다.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도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 더 나은 단계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가치관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어떤 목표와 어떤 추구가 그 가치관안에 담겨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수명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수명이 있다.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정신력이 타락하고 사회적 도덕심이 무너지면 자멸하게 된다.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붕괴에 의한 것이다. 토인비에 의하면 로마의 몰락은 숙명적, 결정론적인 것도 아니다. 천재나 외적의 침입 등 재해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정신의 타락과 사회의 붕괴에 의한 자기결정능력의 상실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거의 모든 사례에 있어서 문명의 몰락은 사회의 쇠약과 내부붕괴를 통한 자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엘리트는 자아 책임을 잃고 붕괴해가고 대중은 사고력·판단력을 눈에 띄게 상실하게 될 때 사회는 자기결정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